10.15686/fkl.2025..64.284 OPEN ACCESS

# 젠더화된 유성애규범성과 무성애적 페미니즘

## -정치적 무성애를 통해 내러티브 독해하기

권다영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목차

1 한국문학에서의 무성애 재현과 무성애적 독해의 필요성
2 과잉 성애화된 남성성 각본과 무성애적 페미니즘의 정치적 가능성
3 정치적 무성애에 입각한 내러티브 독해의 실천
-「너무 한낮의 연애」를 중심으로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무성애적 페미니즘이라는 시각을 통해 유성애규범성이 이성애 남성의 남성성 구성 과정과 결부된 채 젠더화되어 있음을 밝히고, 정치적 무성애의 관점을 내러티브 독해와 젠더적 정동 독해의 매개로 변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실천으로써 김금희의 대표작 「너무 한낮의 연애」를 무성애적 페미니즘의 관점에 입각하여 재독해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젠더 섹슈얼리티 연구 및 퀴어 페미니즘 문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간 「너무 한낮의 연애」는 세기말의 중요한 시대 감수성을 반영하는 소설이자 로맨스 서사로 통용되어왔다. 그러나 본고는 이 소설을 가부장 각본의 순탄한 이행이 붕괴되는 세기말의 조건 속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중심인물이 연애 정상성의 이행을 통해 남성성의 회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서사로 읽고자 한다. 그리하여 중심인물의 강박적인 심리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남은 물론, 소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던 2010년대 중반 당시의 비평 논의가 유성애규범성에 어떠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는지도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국문핵심어: 무성애, 퀴어-페미니즘, 남성성, 섹슈얼리티, 유성애, 유성애규범성, 강제적 유성애, 가부장제,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 페미니즘, 연애 정상성, 성 담론, 성적 지향성, 로맨틱 끌림, 성적 끌림, 김금희, 「너무 한낮의 연애」

## 1 한국문학에서의 무성애 재현과 무성애적 독해의 필요성

본고는 무성애적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유성애규범성[1]이 이성애 남성의 남성성 구성 과정과 결부된 채 젠더화되어 있음을 밝히고, 정치적 무성애

1 유성애규범성이란 에이드리언 리치가 이성애를 정치적 제도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산물이자 사회 구성물로서의 강제적 유성애라 할 수 있다. 에이드리언 리치, 이주혜 역,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 존재」(1980),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바다출판사, 2020, 245쪽.

의 관점을 내러티브 독해와 젠더적 정동 독해의 매개로 변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성애 스펙트럼이란 성적 충동과 별개로[2]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극히 적게 느끼며, 그렇기에 성적 수행을 하지 않거나 성적 실천에 성적 의미가 함의되지 않는 성 지향성을 의미한다. 무성애는 '연애 정상성(amatonormativity)'[3]을 되묻는 무연정(무로맨틱)과 함께 에이엄브렐라 정체성을 구성하며 유성애와 정확히 이분되지 않는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가령 데미섹슈얼이나 그레이섹슈얼은 유동적 상태로서의 무성애를 암시하면서 무성애자 정체성이 성적 끌림의 부재만으로 설명되지 않음을 암시한다.[4] 이러한 무성애 가시화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강제적 섹슈얼리티[5]의 균열점으로서 성애적 규범권력의 작동 양식을 교란한다는 데 있다. 무성애는 이성애·유성애 규범성이 추동하는 생애주기별 서사가 성애화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친밀성이 모노가미 파트너십으로 희소하게 한정되고 있음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성적 욕망과 끌림이 인간의 본능 혹은 본질이라는 지배적인 전제의 '정상성' 자체를 급진적으로 재고하도록 요청한다. 흔히 무성애가 충분히 '급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

2 성적 끌림은 성적 충동과 변별된다. "성적 충동(또는 리비도)은 성적 해소를 원하는 욕망으로, 종종 침투적 사고와 결합하는 신체의 여러 감각이다." 앤절라 첸, 박희원 역, 『에이스—무성애로 다시 읽는 관계와 욕망, 로맨스』, 현암사, 2023, 43쪽. 반면 성적 끌림은 특정인을 향하거나 특정인에 의해 유발되므로, "표적이 있는 리비도"라 할 수 있다. 같은 책, 44쪽.

3 연애 정상성이란 "로맨틱한 사랑을 과분하게 고평가하며 중심에 놓는 경향"을 말하며, "여느 정상성과 마찬가지로 변주를 지운다. 변주가 지워진다는 건 선택이 지워지고 고정관념과 낙인이 승리한다는 의미이다." 앤절라 첸, 위의 책, 218-219쪽.

4 조윤희, 「명사 혹은 형용사로서의 무성애」, 『문화과학』 제116호, 2023, 257쪽. 한편으로는 강제적 무성애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자,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동양인 등은 유성애 정상성에서 주변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무성애는 '기능'의 결격과 퇴보, "사회적/생물학적 죽음"과 등치된다. 이에 대한 저항적 대응으로 이들을 유성애자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은 '인간적 존엄'을 강조하기 위해 성적 권리를 재현함으로써 다시금 유성애와 정상성을 등치시키는 구조적 함정에 빠진다. 같은 글, 251쪽.

5 강제적 섹슈얼리티란 "(사회가 승인한) 섹스를 원치 않는 건 부자연스럽고 잘못되었으며, 섹슈얼리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필수 불가결한 경험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떠받치는 가정과 행동의 집합이다." 앤절라 첸, 앞의 책, 68쪽.

Chu는 정체성의 급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성적인지를 따를 경우 무성애적 실천을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성애 규범과 제도에 저항하기 위해 에로틱한 실천들이 전략으로 채택됨에 따라 퀴어 정체성의 급진성은 성적인 것으로 환원되곤 했으나, 이 경우 무성애 정체성은 다시금 지워진다는 것이다.[6] 저출생 관련 의제들과 무성애를 섣불리 연관 짓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재생산은 섹슈얼리티와 무관하게 기능할 수 있으며 무성애적 재생산은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생산은 젠더나 섹슈얼리티의 핵심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당대 삶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동시대 가장 급진적인 상상의 최전선 지대로서 문학은 그간 여러 성적 소수자들의 삶을 가시화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동성애자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퀴어 정체성이 조명받으면서 한국문학에서도 무성애자가 재현되는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2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김병운의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7]은 게이 화자의 시점을 통해 논모노로맨틱 에이섹슈얼 '주호'와 그의 연인 모노로맨틱 에이섹슈얼 '인주'를 그림으로써 무성애자 가시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성소수자 집단 내부에서도 배타적인 편견과 반감의 대상이 되곤 하는 무성애자들의 고충과

6 Chu, E, "Radical identity politics": Asexuality and contemporary articulations of identity, ed., Megan Milks and KJ Cerankowski, in *Asexualities: Feminist and queer perspectives, revised and expanded ten-year anniversary edition*, Routledge, 2024, pp.59-62. 오히려 무성애 논의가 급진성의 개념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모든 종류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체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Chu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전제가 있는데, 먼저는 기존의 보수적-진보적 섹슈얼리티 스펙트럼 자체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무성애 논의가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성애 논의는 실증주의적 정체성 모델에 기반한 단일한 정체성 범주를 거부하고 개인의 취향과 욕망에 기반한 정체화를 가능하게 하며, 섹슈얼리티와 페미니즘, 퀴어 이론에 새로운 언어를 제공한다. Ibid., p.59. 그런가 하면 무성애가 해방 정치의 맥락에서 '미성숙'하거나 '억압된' 보수적 정체성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Milks는 성적 성숙 서사와 성긍정주의 관점 자체를 문제시하는 한편, 무성애를 위반적인 실천이라 평가하는 파스와 프시비와의 독해를 소개한다. Milks, M, "Stunted growth": Asexual politics and the rhetoric of sexual liberation. ed., Megan Milks and KJ Cerankowski, *Ibid.*, pp.105-106.

7 김병운,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릿터』 제28호, 민음사, 2021, 154-173쪽.

그들에게 으레 따라붙는 모욕의 언사들을 섬세히 포착함으로써 기존의 연애 규범이 얼마나 유성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재고하게 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보다 앞서 발표된 윤이형의 「정원사들」[8]에서는 무성애자 화자인 '효주'가 헤테로 유자녀 가정을 꾸린 '래영'이 실은 무성애자이자 호모 플렉시블(homo-flexibility)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와 서서히 교감하게 되는 내용을 그린다. 자신을 '진짜 퀴어'들의 소수자 정체성을 빼앗는 '가짜 퀴어'처럼 느끼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래영의 심리 진술이 소설의 주를 이루며 무성애자와 호모 플렉시블이 경험하는 퀴어 집단 내부에서의 소외감에 주목하도록 한다. 그런가 하면 정보라의 「지향」[9]에서는 낯선 이에게만 연애 감정을 느끼는 프레이로맨틱 에이섹슈얼 인물이 함께 무성애 가시화 운동에 앞장섰던 '강'과의 일화를 회상한다. 유성애적 친밀성의 특권화가 재생산 미래주의와 영합하여 정상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서사적 형상화보다는 여러 사회학적 저술들을 경유하여 전개된다. 또 은모든의 「탄생」[10]은 무성애를 전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화자 '유림'이 우연한 계기로 무성애자 친구 '마리'를 떠올리면서 무성애 지향성에 대한 개괄과도 같은 단상들이 전반부에 적지 않게 할애된다.

이들 소설은 모두 무성애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을 재현하여 무성애 가시화에 기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런데 본고의 목표는 무성애를 소재로 다룬 소설들의 재현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로맨스로 통용되었던 소설을 대상으로 정치적 무성애에 입각한 독해를 시도하여 유성애규범성을 비판적으로 재고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고의 주장은 사회문화적으로 만연한 유성애규범성이 남성-되기의 각본과 긴밀히 공모하여 젠더화되어 있으며, 정치적 무성애가 이를 해체할 중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무성애의 한 실천으로 무성애적 페미니즘을 사유하고 이에 입각한 독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정체화가 아닌 정치적 전략으로서 무성애란 "여성과 남성 간의 이성

8 윤이형, 「정원사들」, 『인생은 언제나 무너지기 일보 직전』, 조남주 외, 큐큐, 2019, 77-114쪽.

9 정보라, 「지향」, 『서로의 계절에 잠시』, 천선란 외, 큐큐, 2023, 137-166쪽.

10 은모든, 「탄생」, 『꿈과 토템』, 민음사, 2024, 163-190쪽.

애/유성애 중심주의적 관계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라 할 수 있는데, 프시비와가 60~70년대 미국의 페미니즘 독신 운동을 정치적 무성애라 일컬은 것도 "정치적 무성애 운동은 단지 섹스를 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무성애적 친밀관계를 탐구"하기 때문이다.[11] 즉 정치적 무성애는 단순히 섹스 안 하거나 덜 하기가 아니라, 규범적인 생애주기모델로 상정된 '정상성'이 과잉성애화되어 있음을 심문하여 성애사회(Sexusociety)의 성적 통제에 맞서고 강제적 섹슈얼리티(Compulsory sexuality)의 해체를 지향하는 것이다.[12]

또한 정치적 무성애는 섹스를 둘러싼 사회적 강박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다른 양상의 친밀성[13]들을 추구할 자유를 도입한다. 섹스를 특권적 지위에 두지 않는 다양한 끌림의 형태들을 가시화함으로써 규범 너머의 관계, 더욱 풍성한 관계들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성애자에 한정되지 않는 여타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도 긴밀히 연관된다. 이렇듯 정치적 무성애는 특권화된 섹스를 해체하는 한

11 조윤희, 앞의 글, 253쪽.

12 앤절라 첸, 앞의 책, 182쪽. 이때 성애사회란 프시비와가 "성적인 언어, 행위, 욕망, 생각이 얽히며 반복되는 거대한 사회"를 가리켜 일컬은 것으로, 성애사회에서 섹스는 맥락적으로 좋은 것, 건강하고 즐거운 것으로 반복적으로 부호화되면서 마치 의무처럼 추구된다. Markiewicz, M. "Sexuality is over. Long live asexuality." ed., Megan Milks and KJ Cerankowski, *op.cit.*, p.13. 또 강제적 성애란 "'적절한' 맥락(이성애 기혼 또는 모노가미 파트너 간)에서 '적절한' 종류의 (성기 삽입) 섹스를 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사회적 기대, 이데올로기, 제도 및 실천을 지칭한다. 낭만적 관계에 있어 섹스가 필수적이라는 규범적 기대를 만들어내고 인종, 젠더, 신체 형태, 계급 등 개인의 사회적 위치성에 기반한 성적 주체성을 부여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Chasin, CJ D, "Toward an ACE- and Aro-friendly society": Reconstructing the sexual orientation paradigm. ed., Megan Milks and KJ Cerankowski, *Ibid.*, p.365. 이러한 강제적 성애는 '적법한' 인간성 및 개인성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는 개인을 넘어 가족에 대한 규범으로 이어져 '옳지 않은 방식'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규제와 폭력, 국가적 개입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강제적 성애는 가족 및 소비자라는 경제적 생산 단위를 떠받치는 재생산 노동과도 연관된다. *Ibid.*, p.366.

13 무성애적 친밀성이란 섹스를 과잉 의미화하지 않을 때의 쾌락, 커플 형태를 벗어난 관계성에서 가능한 무성애적 즐거움을 말한다. 이는 유성애 규범이 지워온 즐거움에 관심을 가지며 리비도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도 삶을 충만하게 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Markiewicz, M, *op.cit.*, pp.19-20.

편 유성애로 상상되지 않는 다양한 관계적 실천의 양상들을 상상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사랑'이라 추상적으로 통칭되는 관계 안에서 어떠한 다양한 '사랑들'이 존재하거나 발명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자, 우정 및 다른 친밀성들에 비해 특권화되었던 연애의 우위를 걷어내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천 속에서 우리는 욕망하도록 강제되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욕망하거나 욕망할 수 있는지를 보다 폭넓게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을 경유하여 모색되는 무성애적 실천은 단순히 무성애 재현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무성애를 새로운 독해의 시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전술했듯 본고의 목표는 단순히 무성애 스펙트럼을 가시화하여 퀴어 인식론을 확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무성애가 내러티브 독해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이어지는 2장에서는 헤게모니적 남성성 각본과 젠더 규범 표상이 과잉 성애화되어 있음을 살피는 한편 이를 통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무성애가 지금 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논증할 것이다. 3장에서는 유성애규범성의 젠더화를 해체하는 전략으로 무성애적 페미니즘의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는 향후 여타 다른 문학 작품들을 정치적 무성애의 관점으로 다시 읽는 데 유용한 해석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향후 국내 젠더 섹슈얼리티 연구 및 퀴어 페미니즘 문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과잉 성애화된 남성성 각본과 무성애적 페미니즘의 정치적 가능성

섹슈얼리티의 성별화라는 몸에 대한 차별적 해석을 통해 젠더 권력의 효과를 드러내는[14] 가부장제에서 남성성은 여성성 비하와 여성혐오를 통해 비대칭적으로

14 "남녀의 섹슈얼리티가 성별화되어 있다는 것은 실상 남녀의 권력 관계를 전제한다 (…)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는 다른 권력 관계와 다르게 성애화되어 있으므로, '본능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이제까지 정치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독자적인 개인이 아니라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실현하기 위한 대상이거나 국가, 민족, 가족 등 남성 중심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 사용되는 출산 도구로 간주되어 왔다." 정희진,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권김현영

구성된다.[15] 즉 "타자-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수행은 남성됨의 기본 원리"[16]로 승인된다. 팔루스와 페니스는 환영적으로 등치되지만 실제 페니스의 소유가 팔루스의 상징적 권력 향유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모든 종류의 사회적 제도들과 실천들은 페니스의 소유가 효과를 갖게 하고자 고안되었다."[17] 권력은 대의명분을 팔루스에 연결함에 따라 권력의 적법성을 안정적으로 계승한다.[18]

특히 남성의 '소유물'로서 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와 성 지배는 가부장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19] 이는 가부장제의 형제애적 계약과 이성애 친족 정치가 여성 교환을 핵심으로 삼는 데서 기인한다. 그렇기에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성적 능

---

외, 교양인, 2018, 219-221쪽.

15 권김현영, 「들어가는 글」,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권김현영 외, 교양인, 2017, 10-11쪽.

16 황유나, 『남자들의 방—남자-되기, 유흥업소, 아가씨노동』, 오월의봄, 2022, 54쪽.

17 웬디 브라운·조앤 W. 스콧, 김보명 역, 「권력」, 『젠더 스터디—주요 개념과 쟁점』, 캐서린 R. 스팀슨·길버트 허트 편, 후마니타스, 2024, 492쪽.

18 위의 책, 493-494쪽. 즉 가부장제는 부계 혈통을 통해 자산을 물려주는 통치권 모델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팔루스의 의미화하는 권력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체제로서 상징적 재현의 관점에서 논해져야 한다. 이때 권력은 실체가 아니라 상징적·환상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며 전술한 조건들에 따라 실행[상연]되는 것이다. 같은 책, 494쪽.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남성성(과 여성성)은 일종의 '지위'로서 주체와 팔루스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실행[상연]되도록 한다. 같은 책, 491쪽.

19 캐슬린 배리에 따르면 가부장제는 섹스가 권력이라는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에서 시작된다. 웬디 브라운·조앤 W. 스콧, 앞의 책, 487쪽. 하이디 하트만은 가부장제를 "여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상호의존과 연대를 형성하는 남성들 간의 사회적 관계들의 체계"라고 규정한다. 그렇기에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필수적 생산자원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 배제와 여성 섹슈얼리티 제약"이 가부장제의 물적 토대를 형성하며, 여성억압의 이해관계 속에서 남성들의 연대와 사회 구조가 이를 지속한다. 이나영, 「섹슈얼리티를 '급진적으로' 이론화하기」, 『한국사회학』 제53집 제4호, 한국사회학회, 2019, 147쪽. 그런가 하면 케이트 밀렛은 섹스의 성별화된 욕망구조를 문제시하며, '성 해방'의 남성중심성과 섹슈얼리티의 위계에 저항한다. 섹스 자체가 지배 종속관계로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글, 144쪽. 그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여 '내면의 식민화'를 구축하는 생득적 우월성은 제도화되어 있다. 성의 지배는 우리 문화에 가장 널리 만연해 있는 이데올로기로서 근본적인 권력 개념을 제공한다. 케이트 밀렛, 김유경 역, 『성 정치학』, 쌤앤파커스, 2020, 72쪽. 가부장제에서 폭력은 특히 강간 행위로 구현되곤 하는 성폭력 형태에 의존한다. 같은 책, 106쪽.

력과 등치되며 성애적 실천들을 규율한다. 여성의 성적 종속이라는 암묵적인 젠더 권력 구조를 유성애규범성으로 승인한 가부장제는 강제적 성애 서사, 즉 섹스 신화를 통해 남성과 섹스를 둘러싼 문화적·규범적 기대를 생산하고 그 이행을 추동한다. 이는 비단 남성에 한정되지 않으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내면화한 사회 전반에 걸쳐 성경험을 둘러싼 정상성 강박들을 주조한다. 이렇듯 가부장제에서 구축된 유성애 규범들은—남성의 여성 섹슈얼리티 지배와 통제라는 목적하에—젠더화되어 있다. 가부장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원화하여 형성된 규범들인 것이다.[20]

그런데 이렇듯 성별 위계의 인식구조와 성별화된 자본주의 경제체제[21], 사회의 매춘화와 강간 문화[22]를 승인·유통·재생산·환금화하는 가부장제[23]는 오늘날 기술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공간을 거점으로 젠더 억압과 젠더 폭력을 나날이 확장·심화되고 있다.[24] 주류적 삶을 누리는 방법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며 남성됨—시민됨을 조건화하는 남성들은 신자유주의화 이후 신보수주의로 대표되는 전지구적 가부장 체제하에서 대두되었다. 노동력의 유연화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

20 제약들을 일군의 통제 기제로 조직화하는 규범은 "사회적 실천에서 정상화의 암묵적 기준으로 작동"한다. 주디스 버틀러, 이현재 역, 「규제」, 캐서린 R. 스팀슨·길버트 허트 편, 앞의 책, 582쪽. 물론 사회적 규범이란 늘 바뀐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유성애가 규범이 된 사정도 근대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과 무관하지 않다. 가령 전근대 사회에서 백인의 우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백인성은 무성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21 1975년 웨슬리대학 워크숍에서 발표된 직업에서의 분리 현상을 다룬 논문은 남성의 여성 지배를 가능케 하는 한 쌍의 체제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지목하여 마르크스 페미니즘의 이중체제(dual systems) 이론을 발전시켰다. 주디스 로버, 최은정 외 역, 『젠더 불평등—페미니즘 이론과 정책』, 일신사, 2005, 73쪽.

22 강간 문화란 "남성에게 성적 공격성을 장려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지하여 성적 폭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는(normalize) 일련의 신념을 의미한다." 권김현영,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권김현영 외, 58-59쪽.

23 급진적 페미니즘의 규정에 따르면 가부장제는 "남성이 폭력과 성착취로 여성을 종속시키는 세계적인 제도"라 일컬을 수 있다. 주디스 로버, 앞의 책, 118쪽.

24 김애라는 김한균의 논의에 동의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본질은 여성혐오와 아동·청소년 성학대, 성착취 산업이 결합된 젠더폭력"임을 정확히 지적한다. 김애라, 「기술매개 성폭력의 '실질적' 피해와 그 의미」, 『한국여성학』 제38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2022, 11쪽.

으로 팔루스의 특권은 계급화된 채 더욱 희소해지는 반면 경제적 취약성은 증대됨에 따라 남성들은 전통적인 남성성 각본을 실천할 수 없게 되었는데, 알파 메일에 다다르지 못하는 베타 메일로서 주변화된 남성성[25]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은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이들의 대상화를 남성성 획득의 수단으로 삼는다.[26]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을 노예화하는 사이버 포주 경제와 딥페이크 성범죄 등 기술매개 성폭력의 성행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심화와 더불어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고어 남성성[27]을 양분 삼아 거대 산업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가부장제의 고질적인 폭력을 자원화·상품화"[28]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거의 유일한 남성 자원으로서 과대표된 인셀의 성적 정복 내러티브는 성해방 논의와 공모하며[29] 왜소화된 남성성이 여성을 성적 존재로 격하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 우월감을 확보하는 데 더욱 집착하도록 한다.[30]

---

25 주변화된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자본주의적, 이성애 가부장제적 남성성에 대한 복종"에 근거를 두며, 그것을 실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불만, 억울함에 노출되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끊임없이 위계의 아래 단계로 전가하면서 그 경로를 형성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폭력은 정당화되고 생계의 수단이 된다." 손희정, 「기이한 열정—디지털 시대의 고어 남성성」, 『횡단인문학』 제12호,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22, 78쪽.

26 위의 글, 66-67쪽.

27 손희정은 폭력 산업이 디지털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현상을 가리켜 디지털 고어 자본주의라 명명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나 소수자의 신체를 대상화함으로써 자본과 시민권을 획득하는 남성성을 디지털 고어 남성성이라 명명한다. 고어 자본주의의 부상에는 신자유주의적 체제의 편재와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이는 신자유주의화 이후 불균등 지역 발전과 고도 소비사회 속에서 취약계층이 자본(주목) 획득 도구로 폭력을 선택하게 된 사정에 또한 기인한다. 위의 글, 60-65쪽.

28 위의 글, 70쪽.

29 남성이 여성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회일수록 여성들에게 경제적·사회적 권력이 없고 여성들의 성적 권력을 강조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을 유혹하는 위험한 본성을 가졌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캐서린 R. 스팀슨·길버트 허트, 박미선 역, 「서론」, 캐서린 R. 스팀슨·길버트 허트 편, 앞의 책, 25쪽.

30 마리아 마키비츠는 섹스의 자본화 및 섹스할 권리에 대한 욕망 추동이 인셀 범죄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한 바 있다. Markiewicz, M, *op.cit.*, pp.14-15. 이는 성 해방 담론 자

물론 더 이상 특권을 할당받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과 분노는 여성이나 페미니즘이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 비용과 임금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화, 자동화, 복지 축소 등을 가속하는 자본과 국가의 결탁에 물어져야 마땅하지만, 남성성이 내면화한 젠더 위계에서 폭력성의 분출은 오직 아래 단계로만 경로화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여성폭력을 핵심 원리로 삼는 가부장제하 보편적인 남성-되기 내러티브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부장제의 폭력적 착취(에 기생하는 자본주의적 축적)를 강화하는 유성애 정상성의 내러티브와 과잉성애화 문화들을 직시하고 성적 파트너십의 탈중심화를 사유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유성애 정상성의 해체'와 '성차별주의 반대'를 함께 사유하는 것으로 무성애적 페미니즘을 정의하고자 한다.[31] "비정치적으로 간주되어 왔거나 비가시화되었던 피해를 드러내고, (…) 사회 정의의 중요한 의제를 제기"[32]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때, 보다 다양한 페미니즘, 당대적인 페미니즘이 시시각각 발명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사상이자 실천으로서 지금 페미니즘의 과제 중 하나는 성차별적으로 주조된 성애사회와 유성애 규범성, 재생산적 이성애를 특권화하는 섹슈얼리티의 계층화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정치적 무성애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정치적 무성애의 특성에 의거하여 무성애적 페미니즘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인데, 언뜻 이는 4B 운동의 문제의식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33] 그러나 4B의 급진성 및 의의와 별개로, 정치적 전략으로서 무성애

---

체가 남성중심적으로 젠더화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31 관련해 조윤희는 형용사로서의 무성애를 유성애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내세우는데, 이는 당연하게 유성애적이라고 여겨졌던 명사들에 '무성애적'이라는 속성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 조윤희,「명사 혹은 형용사로서의 무성애」, 247쪽. 또한 '무성애적'이라는 수사는 무성애 범주화나 정체화가 "자의적인 범주 경계를 고정시키고 새로운 정상성 규범"을 고착시키곤 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조윤희, 같은 글, 250쪽.

32 정희진, 앞의 책, 209-211쪽.

33 4B(4非) 운동이란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를 뜻하는 약어로, 2024년 11월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여성 생존권 및 재생산권에 대한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적 페미니즘은 독신 실천과 재생산 거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무성애는 '부재'의 전략이 아니며[34] 새로운 관계성 모델의 부단한 발명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캐서린 맥키넌의 언급대로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은 남성 권력의 표현, 성애화된 지배로서 섹슈얼리티를 분석하는 것"[35]이라 할 때, 무성애적 페미니즘은 성애 자체의 젠더화를 문제시하고[36] 젠더가 내포한 섹슈얼리티 규범의 성애화가 비대칭적임을 비판한다.

구체적으로 무성애적 페미니즘이란 무엇보다도 유성애규범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 섹슈얼리티의 통제·억압·산업화에 대한 저항에 강조점을 둔 성차별주의 반대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성욕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담론을 심문함으로써 사회가 남성의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에 최적화된 형태로 성애화되어 있다는 인식론적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성애를 특권화하지 않는 실천들을 페미니즘의 주요 의제로 도입할 수 있다. 즉 무성애적 페미니즘은 유성애 정상성 또한 남성 신체와 특권을 연결하는 남성성 각본의 주요한 기제가 아닌지, 성애사회가 성적 욕망을 더욱 추구하도록 개개인을 구성하는 건 아닌지[37] 질문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애의 특권적 의미화를 중심으로 주조된 사회문화적 내러티브에 의심을 품고 지금의 '정상성' 구조로 환원되지 않는 대안적인 친밀한 관계를 상상하고 발명해내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무성애적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무성애자로 정체화하지 않더라도 성적 통제와 성 규범,

---

받고 있다.

34 무성애가 성적 끌림이나 성적 실천의 '부재'로 정의될 경우 성적인 것을 정상 규범으로 전제하는 가부장제 각본을 다시 강조할 위험이 있다. 대표적으로 프시비와는 무성애를 비실천, 비수행이 아닌 실천과 수행으로 재범주화한다. 특정 경험의 부재나 결여가 아니라 다면적인 관계 수행과 실천으로서 무성애를 이해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조윤희, 「한국에서의 무성애 지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온라인 커뮤니티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7권 제4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130쪽.

35 이나영, 앞의 글, 156쪽.

36 동성애를 비롯해 어떤 섹슈얼리티 수행에도 젠더 문제가 기입되어 있다.

37 섹스는 정치적이다. "섹스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일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일이다." 정희진,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偏在하는 남성성」, 『남성성과 젠더』, 권김현영 외, 자음과모음(이룸), 2011, 25쪽.

성적 주체화 및 성숙의 서사로 대표되는 성애화된 사회문화에 저항하는 것으로 무성애적 실천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유성애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남성들에게 해방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연애, 섹스, 결혼, 출산 또한 무성애적 실천이 될 수 있"[39]음을 상기해볼 때, 무성애 논의는 다자연애 및 가족폐지론[39]과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 3 정치적 무성애에 입각한 내러티브 독해의 실천 -「너무 한낮의 연애」를 중심으로

그리하여 이 장에서는 김금희의 대표작 「너무 한낮의 연애」를 무성애적 페미니즘의 관점에 입각하여 재독해하고자 한다. 로맨스 서사로 통용되어온 소설 중에서도 특별히 「너무 한낮의 연애」를 대상 텍스트로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이 소설이 유수의 문학상을 받으며 널리 읽힌 당대의 대표작인 동시에 헤게모니적 남성성 획득에의 위기가 크게 부각되었던 IMF 이후를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심인물 필용이 '사랑'의 대상으로 욕망되어 남성성을 보증받고자 애원하는 기점마다 가부장적 권위의 훼손이 자리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다.

세기말의 중요한 시대 감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널리 평가받아온[40] 「너무

38 조윤희, 「명사 혹은 형용사로서의 무성애」, 254쪽.

39 가족폐지론이란 제도로서의 가족이 돌봄을 사적인 영역에 한정하고 친밀성, 사랑 등의 정서적 자원과 돌봄을 희소화하여 생물학적 혈연관계라는 규범적인 형태의 사유화 수단을 통해서만 안정적으로 공급·획득됨을 통해 그 착취 구조의 부조리와 국가의 경제적 계약 및 외주화, 분배된 노동 부담이 자연화된 사정을 폭로한다. 궁극적으로 가족폐지론은 사회적 재생산을 조직하는 다른 방식의 발명, 즉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소피 루이스, 성원 역, 「가족을 폐지하라—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서해문집, 2023.

40 신샛별, 「우리 시대의 감정생태 보고서—김금희론」, 『문학동네』 제23권 제3호, 2016; 임정균, 「마음의 리얼리즘: 김금희론」, 『창작과비평』 제47권 제3호, 2019; 이희원, 「서울 개발과 젠더적 장소의식: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김금희의 「너무 한낮의 연애」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43권 제4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4.

한낮의 연애」는 2016년 제7회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김금희를 대상으로 한 평론과 논문 중 가장 빈번히 다뤄졌다. 이들 비평과 연구는 주로 양희와 필용의 이분화된 세계 표상에 주목하였는데, 양희를 대표하는 문산이라는 장소가 서울로 대표되는 필용의 속물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41] 결말부 필용이 느끼는 부끄러움 또한 흔히 속물성에 대한 깨달음과 그 반성으로 독해되어왔다.[42] 이는 타당한 접근이지만 젠더적 관점이 쉽게 소거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못내 아쉬움을 남긴다.[43] 특히 흥미로운 건 그간 이 소설이 자연스럽게 연애 서사로 통용되어온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신형철은 이 소설을 쌍방 사랑을 전제한 전통적인 로맨스 서사로 읽어낸다.[44] 김금희의 소설이 세기말 IMF 이후의 조건에서 당대적인 감정생태의 역학관계를 세밀히 그려내는

41 명혜영은 양희를 '원시적 공간'을 대표하는 인물로 상정하여 인간의 진정성 회복에 이르는 여정으로 이 소설을 분석한다. 명혜영, 「각인되는 장소로서의 몸—가네하라 히토미 「하이드라(ハイドラ)」, 김금희 「너무 한낮의 연애」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123권, 한국일어일문학회, 2022. 박구비는 필용과 양희가 속한 세계가 각각 문자와 비문자의 세계로 이분화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 세계가 서로를 대리보충하며 공존한다고 분석한다. 박구비, 「문자/비문자 세계의 접합 (불)가능성과 '있지 않음'의 윤리—김금희의 「너무 한낮의 연애」(2016)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96집, 국제어문학회, 2023.

42 신성환, 「'아주 없음'에서 '있지 않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한낮의 체험—김금희의 「너무 한낮의 연애」」, 『본질과 현상』 제42호, 본질과 현상사, 2015; 강지희 해설, 김금희, 「잔존의 파토스」, 『너무 한낮의 연애』, 문학동네, 2016, 282쪽.

43 이희원은 장소의 젠더화라는 관점에서 자본 논리를 내면화한 서울과 야생성이 들끓는 문산의 상이한 장소성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필용에게 양희가 사회적 표준과 규범화된 젠더 의식에 미달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점과 이분화된 공간이 각각 형상화하는 젠더적 장소감을 적실히 포착하고 있으나, 여느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성 인물을 상징하는 문산이라는 장소의 구원적 기능에 치중하는 면이 없지 않다. 이희원, 앞의 글.

44 "십육 년 전, 가난했던 여자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었지만 사랑해 달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었고, 미숙했던 남자는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야 그런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고 남자는 떠나며 울었으나, 그렇게 떠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쪽은 눈물도 못 흘린다는 것까지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신형철, 「심사평」, 『2016 제7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김금희 외, 문학동네, 2016, 330-331쪽. 그러나 이는 사랑의 정의에 의구심을 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이 '한다'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으로 묶일 수 있는 동일한 감정 혹은 상태인가?), 사랑의 '결렬' 요인 중 '가난'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징후적이다.

것으로 평가하는 신샛별의 경우에도 필용의 문산행을 "절절한 사랑을 고백"[45]하려는 결심으로 읽는다. 이희원 또한 두 인물이 "짧은 연애 감정을 나누고 강한 이별을 경험"[46]하는 것으로 줄거리를 요약하며 필용을 양희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품게 되는"[47] 인물로 본다.

그러나 본고는 「너무 한낮의 연애」를 가부장 각본의 순탄한 이행이 붕괴되는 세기말의 조건 속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중심인물이 연애 정상성의 각본 이행을 통해 남성성의 회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서사로 읽고자 한다. 필용을 초점화자로 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필용의 처지와 감정에 이입하도록 유도되지만, 필용을 주변화된 남성성을 대변하는 인물로, 양희를 에이엄 주체로 보고 양희의 시선에서 이 소설을 다시 읽을 때 더욱 풍성한 독해가 열린다. 즉 이 소설을 무성애적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재독할 때 중심인물의 강박적인 심리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남은 물론, 소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던 2010년대 중반 당시의 비평 논의가 유성애규범성에 어떠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는지도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인생 최대의 위기"[48]인 인사이동을 통보받은 필용은 16년 전 "구원"(33)의 장소였던 종로의 맥도날드를 다시금 맴돌게 된다. 과거 그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어려운 시절 학과 후배 양희와 어학원에서 같은 강의를 듣고 매일같이 맥도날드에서 함께 점심을 먹곤 했다. 딱히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다. 과장이 심한 그가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자 허세에 가까운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양희는 그저 묵묵히 듣는 식이었다. 초면과 마찬가지인 여성에게 허풍을 늘어놓는 것을 루틴으로 삼는 모습은 그의 남성성이 극히 손상 입은 상태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양희가 "느닷없는 사랑 고백"(20)을 하며 이 관계에는 전환이 발생한다.

조용히 듣고 있던 양희가 선배, 나 선배 사랑하는데, 했다. 양희는 그 말

45 신샛별, 앞의 글, 109쪽.
46 이희원, 앞의 글, 10쪽.
47 이희원, 위의 글, 18쪽.
48 김금희, 「너무 한낮의 연애」, 앞의 책, 14쪽. 이후 같은 소설을 인용할 경우 본문에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을 감정의 고저 없이, 천원, 이천원을 쥐여주며 햄버거 주문을 부탁하던 톤으로 했다. 필용은 당황해서 어어, 하고는 웃어버렸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요?"

양희가 뭐 그런 걸 묻느냐는 듯이 되물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지."

"그런 걸 뭣하러 생각해요."

양희는 방금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나른해하더니 노트를 펼쳐서 뭔가를 적었다. 필용은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고백한 사람은 양희인데 그 몇 분 사이에 그 사랑에 목매는 사람은 자기가 된 것 같았다.(20-21)

기껏 '사랑'을 고백해놓고 '연애'로의 진입에 초연한 양희로 인해 필용의 고뇌가 시작된다. 이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소설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은 마치 통과의례처럼 사회적으로 만연한 연애지상주의이다. 연애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이성애 출생률에 대한 국가의 욕망 및 연애 각본의 정상성을 주조하는 소비 산업의 욕망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는 매력 자본의 계급과 긴밀히 공모하며 그 구조를 강화한다. 연애 정상성은 인생의 특정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각 개인이 "각종 공동체와의 조정을 요구받는 동시에 관계-자아의 기술 자체를 점검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성적 정체성에서부터 결혼과 자녀 계획 여부를 끊임없이 심문하는 등 "안전한 존재"[49]인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대표한다. 연애의 유무와 횟수, 능숙도, 성적 매력의 정도는 계급화되어 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적 섹스 자본은 오늘날 계급구조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50]

이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거듭 물으며 대답을 재촉하는 필용에게, 양희는 "모르죠, 그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라며 무

49 권보드래, 「추천의 글—연애를 넘어, 사랑을 위해」, 『내가 연애를 못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문학 탓이야』, 김만석 외, 알마, 2014, 7쪽.

50 다나 카플란·에바 일루즈, 박형신 역, 『섹스 자본이란 무엇인가』, 한울(한울아카데미), 2022, 117쪽.

심히 반응할 뿐이다. 특히 “지금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는데,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요”(22)라는 대답에서 필용은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낀다.[51] 모욕감에 분노를 표출하던 그는 이내 매일같이 양희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으며 불가해한 (불안과) 기쁨을 느낀다. 어느새 그는 “구원”(33)과도 같은 양희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살듯 되어버리지만, 정작 양희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필용 또한 양희와의 연애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집착하는 것은 양희와의 연애가 아니라 이성에게 성적 대상으로 욕망됨으로써 남성성을 증명받는 일뿐이다. 사회적 통념의 학습에 따라 “건강한 이십대니까 언제나 여자에 대해 생각했고 여자가 중요했지만”(21) 그는 양희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연애를 생각하면 양희에게는 “결격사유가 많았다.”(21) “사랑하죠, 오늘도”(25)라는 대답에 늘상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내심 어김없이 “양희의 외모나 한심스러움, 생기 없음, 무기력함, 가난에 대한 은근한 경멸”(29)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과 ‘경멸’의 양가감정에는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유성애 각본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있다. 구원의 성패에 대한 집착은 필용의 견고한 남성성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 (1) 저렇게 말없이, 모든 것에 초연한 채 수용만 하는 여자친구는 구체관절인형과 뭐가 다른가. 필용은 그 짧은 순간에 양희와 하게 될지도 모를 섹스에 대해서까지 상상하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온몸이 축축 처지는 기분이었다.(21)

> (2) 그래도 가야 했다. 안 갈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문산까지 가서 양희를 만난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그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연애와 사랑, 연민, 속박, 약속, 의무, 섹스의 시작이었다.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던 게 생겨나는 것이었다. (…) 내 사랑을 되돌려줘, 나에게서 빼앗아가지 말아주오.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필용은 생각했다. 해

51 ‘여자가 나를 무시했다’는 명목이 인셀 남성들의 여성 혐오와 여성 표적 범죄에 유구한 ‘정당성’으로 남용되어 왔음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보겠다고 생각했다. 문산에 가서 말하겠다. 양희야, 너의 허스키를 사랑해, 너의 스키니한 몸을 사랑해, 너의 가벼운 주머니와 식욕 없음을 사랑해, 너의 무기력을 사랑해, 너의 허무를 사랑해, 너의 내일 없음을 사랑해.(33)

양희의 사랑 고백은 필용으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양희와의 섹스를 그려보게 한다. 양희의 "사랑하는데"(20)는 "연애와 사랑, 연민, 속박, 약속, 의무, 섹스"라는 유성애적 모노가미 정상 연애 내러티브의 이행, 곧 '섹스하고 싶은데'로 필용에게 번역되고, 가부장적 성애사회에서 이성에게 섹스 대상으로 욕망된다는 것은 남성성의 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유학이 불투명한데다 가난한, 즉 "잘난 아들"(33)이라는 가부장적 자격에 미달함을 스스로 잘 아는 그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다. 즉 필용의 집착에 가까운 질문에는 그가 들어야만 하는 정해진 대답이 있다. 유성애 각본으로 돌입한 한 쌍의 배우가 되어 "섹스"에 이르겠다는 긍정 말이다. 이처럼 유성애적 실천으로 과대표된 남성성은 앞서 그가 모욕감을 느꼈던 이유를 동일하게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값 떨어"(31)지는 여성이 아닌 높은 매력 자본을 보유한 여성의 소유가 남성성의 계급을 또한 보증하기에, 자존심 강한 그는 지속적으로 양희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희구할지언정 먼저 연애를 시작하자고 적극 나서지는 못한다.

그러다 양희의 사랑은 "없어"진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햄버거를 먹던 양희가 문득 "나 안 해요, 사랑"(30)이라 말한 것이다. 당황한 필용은 평소 자신이 무시하고 폄하하던 양희의 외양을 매력이라 추켜올리면서 양희가 언제나처럼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회유한다. 그러나 "사탕발림"(31)이 통하지 않자 태도를 돌변해 그간 속으로만 생각하던 멸시의 내용과 인신공격을 마구 늘어놓으며 공격한다. (이 또한 전형적인 인셀 남성들의 여성 혐오 패턴을 떠올리게 한다.) 이후 양희는 본가로 돌아가고, 허둥거리던 그는 연애의 "시작"을 "해보겠다고", 즉 '사귀어주겠다고' 엄중하게 시혜를 결심하고서 마음의 준비를 마친 채 그 자신의 일방적 '희생' 로맨스에 "전율"(37)해 연락도 없이 불쑥 양희의 본가로 찾아간다. 이는 실상 "빼앗"겼던 것—남성성—을 되찾겠다는 절박함이지만, '사랑해'를 반복적으로 외는 자기 암시에 의해 양희에게 "없던 게[사랑] 생겨나"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으로 내면화된다. 그리고 이는 유성애 정상성이라는 허구적 각본이 추동하는 구원 및 교정으로서의 로맨스 서사를 정확히 따른다. 이렇듯 혼자 착각하여 모든 시련과 비련을 끌어안은 것처럼 공포스러운 집착을 보이는 그의 자의식 과잉은 언뜻 여성 표적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연인관계'라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당시 이 소설이 낭만적인 연애담으로 읽히기도 했음은 상당히 놀라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양희에게서 찾으려 했던 건 자기 자신의 회복일 뿐"[52]임을 깨달은 필용은 자신의 (허구적) '사랑'이 없어졌음을—반나절도 되지 않아—느낀다. 양희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상태는 '없음'이 되었지만, 두 인물이 각각 정의하는 사랑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왜 필용은 '사랑 고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섹스'라는 목적지를 상정한 각본의 이행을 머릿속에서 펼쳐 보이며 사랑을 자신(의 남성성)을 '구해줄' 유성애의 '계약'으로 이해하는 반면, 양희에게 사랑은 '사랑하는데'와 '없어졌어요' 사이에서 기상예보처럼 있었다 없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상태'로 존재할 뿐 어떠한 예정된 시나리오도 전제하지 않는 것일까. 이 점이 진정 이 소설의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한다.

> 양희가 사랑하죠, 하고 말하면 별안간 맥도날드의 공기가 전혀 다른 온도를 띠면서 필용을 얼렸다, 달궜다, 얼렸다, 하곤 했다. (…) 저 여자가 날 사랑했던 여자야! 객석에는 기껏해야 서너 명밖에 없는데도 필용은 벌떡 일어나 그렇게 외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 "뭔가 양희의 관심을 절실히 원하지만 책임지고 싶지는 않은 것,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확인하고 때론 표현하고 싶은 것, 양희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 싶은 건 십육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다.(26-29)

양희에게 '부재'한 것을 '유재(有在)'로 바꾸기 위한 필용의 결심은 맥도날드와 문산에서, 그리고 16년 후 재회에서 번번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 결심은 '사랑'으로 번역되는 남성성 구원의 내러티브와 매번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인사이동

52 양경언 해설, 「소설의 말」, 김금희 외, 앞의 책, 50쪽.

으로 인해 자존심이 "지하" 바닥까지 떨어지고 아내와 아이에게 부끄러운 가부장이 된 시점에서 양희를 다시 찾게 되었음은 의미심장하다. "정말 누군가 구해줄 사람이 필요한 얼굴"(12)을 하고서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미, 구해줘, 구해줘"(10) 외치는 대상이 과거 자신의 "수다를 모두 감당해주었"(16)던, 자신이 욕망될 만한 남성임을 보증해주었던 양희라는 점은 남성성이 극도로 손상된 상황에서의 절박한 인정욕구를 드러낸다.

또 그의 사랑 선전 포고 충동은 마치 무성애자 혹은 에이엄의 성적 욕망이나 로맨스 추구 '없음'을 '있음'으로 교정하여 '정상화'하겠다는 사회적 압박을 대변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양희는 이러한 유성애 정상성 각본에 결코 기입되지 않으며, 그보다 자신만의 "더럽게 재미없는"(17) 각본을 계속해서 쓰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16년 후 연극 무대에 올려지는 '나무는 ㅋㅋㅋ하고 웃지 않는다'라는 양희의 각본을 무성애적 친밀성의 한 가능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한 쌍의 배우가 되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마주 본 이들의 관계성은—"양희가 객석으로 내려와 손을 내밀었고 필용은 그 손을 내려다보"(40)는 알레고리적 장면으로 그려질지언정—필용이 당초 희구했던 모성적 구원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물론 로맨스로도 우정으로도 정의되지 않는다. 과거 양희가 "필용과 함께 있는 시간을 견뎠"(40)던 것임을 깨닫게 된 필용은 자신이 양희를 대상화하며 수단 삼아왔을 뿐임을 반성하게 되면서 비로소 "슬프고 부끄러"(41)운 감정을 느낀다. '없음'이 아니라, 그저 "어떤 것은 (…) 있지 않음의 상태로 잠겨 있을 뿐"(42)이라는 걸 직시하고 존중하는 관계성에 대해 필용은 어렴풋이 깨닫지 않았을까. 당장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더라도 말이다.

## 4 결론

헤게모니적 남성성 각본의 순조로운 이행이 붕괴된 전 지구적 상황 속에서, 고어 남성성을 주축으로 한 기술매개 성폭력이 성행하며 여성을 표적으로 한 성 착취의 양상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가 남성성을 구성하고 보증하는 중핵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부장제하 강제적 유성애 규범들은 남성성 각본과 긴밀히 공모하여

여성 섹슈얼리티 지배와 통제라는 목적하에 젠더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성폭력을 핵심 원리로 삼는 보편적인 남성-되기 내러티브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유성애적으로 구성된 정상성의 헤게모니에 균열을 내는 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무성애적 페미니즘을 사유할 필요가 있다. 유성애의 젠더화를 문제시하는 무성애적 페미니즘은 유성애규범성의 해체와 성차별주의 반대를 함께 강조하는 페미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 무성애적 페미니즘은 남성성 각본에서 섹슈얼리티 규범이 비대칭적으로 성애화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남성의 자원으로 통제·관리되는 것에 저항한다. 유성애 정상성이 남성 신체와 특권을 연결하는 남성성 각본의 주요한 기제가 아닌지, 성애사회가 성적 욕망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도록 개개인을 구성하는 건 아닌지 질문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인식과 미디어 재현 등에서 자연화된 유성애규범성을 되묻고 그 아래 함의된 젠더 권력을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성애적 페미니즘은 그간 문학작품에 '로맨스'라는 이름으로 덧붙여져 있던 것들을 다시 보도록 독해의 방향을 확장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문학을 경유하여 모색되는 무성애적 페미니즘은 무성애 재현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무성애를 새로운 독해 도구로 도입하여 독해의 방향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치적 무성애의 관점을 내러티브 독해와 젠더적 정동 독해의 매개로 변용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본고는 그간 로맨스 서사로 읽혀온 김금희의 「너무 한낮의 연애」를 재독해하였다. 이 소설은 남성 인물이 유성애적으로 구성된 연애 각본을 따르며 성애의 대상으로 욕망되기를 희구함으로써 훼손된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서사로 읽을 수 있다.

친밀성의 우위에 섹슈얼리티의 특권이 놓이지 않는 무성애적 친밀성을 상상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친밀성의 다양성은 더욱 넓게 확보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또 다른 정상성을 규범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다. 특권의 자리바꿈이 아니라 특권의 해체 및 개개인의 다양한 욕망 탐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더욱 풍부한 양상들에 대한 상상의 초석을 마련하는 작업인 것이다. 남성성의 조건을 구성하는 유성애규범성이 젠더화되어 있다는 인식은 페미니즘이 언제나 그러하듯 남성들에게도 해방으로 기능할 수 있다. 페미니즘은 무성애를 또 어떻게 사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중요한 한 과제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김금희, 『너무 한낮의 연애』, 문학동네, 2016.

김금희 외, 『2016 제7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16.

김병운,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릿터』 제28호, 민음사, 2021.

_____,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민음사, 2022.

정보라, 『작은 종말』, 퍼플레인, 2024.

윤이형, 「정원사들」, 조남주 외, 『인생은 언제나 무너지기 일보 직전』, 큐큐, 2019.

은모든, 『꿈과 토템』, 민음사, 2024.

정보라, 「지향」, 천선란 외, 『서로의 계절에 잠시』, 큐큐, 2023.

### 단행본

권김현영 외,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10-11쪽.

권김현영 외,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58-221쪽.

김만석 외, 『내가 연애를 못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문학 탓이야』, 알마, 2014, 7쪽.

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이룸), 2011, 25쪽.

황유나, 『남자들의 방—남자-되기, 유흥업소, 아가씨노동』, 오월의봄, 2022, 54쪽.

다나 카플란·에바 일루즈, 박형신 역, 『섹스 자본이란 무엇인가』, 한울(한울아카데미), 2022, 117쪽.

소피 루이스, 성원 역, 「가족을 폐지하라—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서해문집, 2023, 1-184쪽.

에이드리언 리치, 이주혜 역,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바다출판사, 2020, 245쪽.

앤절라 첸, 박희원 역, 『에이스—무성애로 다시 읽는 관계와 욕망, 로맨스』, 현암사, 2023, 1-352쪽.
주디스 로버, 최은정 외 역, 『젠더 불평등—페미니즘 이론과 정책』, 일신사, 2005, 73쪽.
캐서린 R. 스팀슨·길버트 허트 편, 김보명 외 역, 『젠더 스터디—주요 개념과 쟁점』, 후마니타스, 2024, 1-760쪽.
케이트 밀렛, 김유경 역, 『성 정치학』, 쌤앤파커스, 2020, 72-106쪽.
Megan Milks and KJ Cerankowski (Eds.), *Asexualities: Feminist and queer perspectives, revised and expanded ten-year anniversary edition*, Routledge, 2024, pp.1-434.

논문 및 간행물

김애라, 「기술매개 성폭력의 '실질적' 피해와 그 의미」, 『한국여성학』 제38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2022, 1-36쪽.
명혜영, 「각인되는 장소로서의 몸—가네하라 히토미 「하이드라(ハイドラ)」, 김금희 「너무 한낮의 연애」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123권, 한국일어일문학회, 2022, 265-282쪽.
박구비, 「문자/비문자 세계의 접합 (불)가능성과 '있지 않음'의 윤리—김금희의 「너무 한낮의 연애」(2016)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96집, 국제어문학회, 2023, 221-245쪽.
손희정, 「기이한 열정: 디지털 시대의 고어 남성성」, 『횡단인문학』 제12호,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22, 57-83쪽.
신샛별, 「우리 시대의 감정생태 보고서—김금희론」, 『문학동네』 제23권 제3호, 문학동네, 2016, 101-121쪽.
신성환, 「'아주 없음'에서 '있지 않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한낮의 체험—김금희의 「너무 한낮의 연애」」, 『본질과 현상』 제42호, 본질과 현상사, 2015, 256-265쪽.
윤보라, 「디지털 거주지(digital dwelling)와 성폭력*—'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건'을 다시 보기」, 『페미니즘 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여성연구소,

2020, 123-165쪽.
이나영, 「섹슈얼리티를 '급진적으로' 이론화하기: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의 발전과 조우」, 『한국사회학』 제53집 제4호, 한국사회학회, 2019, 137-180쪽.
이희원, 「서울 개발과 젠더적 장소의식: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김금희의 「너무 한낮의 연애」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43권 제4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4, 5-34쪽.
임정균, 「마음의 리얼리즘: 김금희론」, 『창작과비평』 제47권 제3호, 창작과비평, 2019, 337-356쪽.
조윤희, 「한국에서의 무성애 지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온라인 커뮤니티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7권 제4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125-159쪽.
_____, 「명사 혹은 형용사로서의 무성애」, 『문화과학』 제116호, 문화과학사, 2023, 245-259쪽.
최태섭·조윤희, 「과잉과 과소 사이에서 섹스를 다시 생각하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4호,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807-839쪽.

## Abstract

Gendered Allosexuality and Asexual feminism
— Reading the narrative through political asexuality

Kwon, Dayoung
Korea University

Through a perspective of Asexual feminism, this thesis aims to reveal that allosexuality is gendered in connection with the process of constructing masculinity of heterosexual men, and to transfor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asexuality into a medium of narrative reading and gender-affective reading.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of gender sexuality and queer feminism literature in Korea in the future.

"Love in Too Middle of the Day" has been considered a romance short story. However, this thesis intends to read the short story as a narrative in which the central character seeks to restore masculinity through the allonormativity amid the crisis of

hegemonic masculinity in the conditions of the end of the century when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patriarchal script collapses. Through this rereading, it will be possible to reflect on how the critical discussion at the time of the mid-2010s revealed the perception of allosexuality.

Key words: Asexuality, Queer-feminism, Masculinity, Sexuality, Allosexuality, Allonormativity, Compulsory sexuality, Patriarchy, Feminist theories on sexuality, Feminism, Amatonormativity, Sexual discourse, Sexual orientation, Romantic attraction, Sexual attraction, Kim Geum-hee, “Love in Too Middle of the Day”

논문제출 / 2025.03.15.
논문접수 / 2025.03.16.
게재확정 / 2025.04.04.